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광복70년 특집 인간극장 (홍차 아지매 명일씨의 망향가)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낸 타임	25 광복70년 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9 00 신문이여기 들적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40 광복 70년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재)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40 채널A 뉴스토크	00 여름기획 넷워킹 특선 우리동네로 오세요 55 바른길 고운말(재)	00 수목드라마 (여왕의 꽃)(재)	00 주말특별기획 (여왕의 꽃)(재)	10 KBC 생활뉴스 30 닥터 365 3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특집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특별기획 (여왕의 꽃)(재)	00 SBS12뉴스 50 닥터 365
1 50 뉴스특급	00 KBS 명품역사관 역사자널 그 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재)	30 키즈 사이언스5(재)	00 건강클리닉
2	00 광복70년 미래30년 특선 오늘, 미래를 만나다(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독?독! 키즈쿨	00 KBC 창사20주년 기획 가고싶은 섬 3부(재)
3 00 직인직설	00 이웃집 찰스(재) 55 튜튼생활채널	4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00 MBC 뉴스 10 마법천자문 40 앙코르 특집다큐멘터리 허풍으로 만나는 중국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사이드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큐 공감(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유치원 공대공	25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재)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30 우리집 탐구생활
5 4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영상앨범 선(재)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바이클론즈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저녁 55 2015 K리그 (수원·대전)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아내가 났잖아(재)	00 KBS 뉴스7 30 필통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들어온 황금복)	10 시사저널 피파피파 20 일일드라마 (들어온 황금복)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가죽을 지켜라)	55 비타민	30 광복70주년 특집 리얼스토리 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광복70주년 특집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광복70년 특별기획 슈퍼코리아의 꿈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수목드라마 (여왕의 꽃)	00 수목미니시리즈 (밤을 걷는 선비)	00 드라마 스페셜 (용팔이)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임 40 광복70년 특집다큐 (이상실, 불꽃의 시간)	1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12 50 총격실화극 (싸인)(재)	35 동행(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2차대전 종전 70주년 기획 다큐 (세계대전)	35 MBC 뉴스 24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일 스페이스 정글	15:00 초능력 특공대	19:30 EBS 뉴스
05:30 건강환 아침	09:40 토크쇼 부모-그녀의 품격	15:15 두끼 탐험대	19:50 사신에서
05:40 성경시대 가능한국인(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뽀빠에 친구	20:40 다큐 오늘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5 부흥! 부흥! 브루미즈	20:50 세계대마기행
07:00 뽀빠에 친구(재)	11:10 다큐 오늘	16:00 당동명 유치원(재)	(환상의 시간 속으로, 라트비아)
07:15 책과 땅(재)	11:20 세계대마기행	16:20 원더볼즈	21:30 한국기행 (함반도)
07:30 건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우당탕탕 아이쿠	21:50 EBS 다큐프라임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또 하나의 독립운동)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걸작 다큐멘터리	16:45 책과 땅	22:45 극한직업
08:00 당동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7:00 방귀대장 뽀빠이(재)	23:35 세계기록유산 아틀라스 (중국 4 문화)
08:20 로보카 폴리(재)	13:10 초등 6년 EBS 여흥방학생활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24:05 지식채널e
08:35 방귀대장 뽀빠이	13:30 초등 5년 EBS 여흥방학생활	17:30 두디디공	24:10 한국영화특 (의형제)
08:50 코코몽 3	13:50 초등 4년 EBS 여흥방학생활	17:45 로보카 폴리	
09:05 원더볼즈(재)	14:15 정글북 2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9:20 풍선 코끼리 발루보	14:30 머털도사	19:00 곤	

EBS플러스1

00:00 올림픽스 <국어II-왕짜개념>	12:10 올림픽스 <국어II-왕짜개념>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듣기>
01:40 " <화통과 통계>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b>
02:30 "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픽스 <화통과 통계>
03:20 " <수학II>	15:40 "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픽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16:30 " <수학II>
05:00 뉴탐스런 <화학I>	17:20 올림픽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06:00 " <지구과학I>	18:10 EBS N제 <수학A>
06:40 " <세계지리>	19:20 " <동아시아사>
07:30 "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20:50 2016 인터넷 수능
09:10 " <이은주의 수학II>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A>	21:50 " <문학 A>
11:00 " <수학I>	22:30 박범의 이슈를 만나는 경제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6:00 초등 3년 EBS 여흥방학생활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20 초등 4년 EBS 여흥방학생활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16:40 초등 5년 EBS 여흥방학생활
09:00 출거운 수학 EBS MATH	17:00 초등 6년 EBS 여흥방학생활
09:10 15일의 기적 <국어(3)(4)>	17:20 만점왕 평가문제집
09:50 " <수학(2)>	<전과목5-1>
10:30 " <영어(2)>	18:00 EBSTV 수학 <국어(5)(6)>
11:10 " <사회(2)>	18:40 초등스토리 한국사 (1)(2)
11:50 " <과학(2)>	19:20 필독 중학 국어 <시>
12:30 EBS 특강	20:00 EBS 기획특강
13:10 15일의 기적 <국어(5)(6)>	20:50 EBS 기획시리즈
13:50 " <수학(3)>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4:30 " <영어(3)>	22:00 15일의 기적 <과학(3)>
15:20 초등 1년 EBS 여흥방학생활	22:40 등업산공 <과학 3(상)>
15:40 초등 2년 EBS 여흥방학생활	23:20 필독 중학 <사회2-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2일(음 6월 28일 庚申)

子	48년생 오래 가지 않게 빨리 잠재워야 할 것이다. 60년생 지체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알라. 72년생 길조가 비추지만 손쉬운 일이 잘 실패야 하나라. 84년생 주된 것을 위주로 이끌어 간다면 타개 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2, 45	午	42년생 길과 속이 전혀 다른 형국이다. 54년생 지구력의 정도에 따른 편차가 대단히 크다. 66년생 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78년생 순탄한 하루지만 할 일은 태산 같이 쌓여있다. 행운의 숫자 : 16, 41
丑	49년생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듯 하리라. 61년생 형세를 이루고 있는 연원을 알게 될 것이다. 73년생 진중하게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법이다. 85년생 쏟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주위 도움 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30, 57	未	43년생 승인이 있으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이익이다. 55년생 시 간이 지날수록 가련이로다. 67년생 충분히 검토한 후에는 과감하게 변경해도 무난하다. 79년생 좀 더 여유를 갖고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1, 25
寅	38년생 교육은 훗날의 아픔을 예고하는 전원이자 된다. 50년생 길상이 깨어지면서도 맑은 기운으로 들어온다. 62년생 예정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74년생 무리함이 없는 날이다. 86년생 확인한 후에 처리함이 옳다. 행운의 숫자 : 18, 77	申	44년생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이다. 56년생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잘 살펴봐야 하나라. 68년생 어떻게 표현하느냐하는 방식의 차이가 상당하다. 80년생 실행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10, 66
卯	39년생 승세로 돌아간다. 51년생 보지만 말고 직접 접해야 하나라. 63년생 마음을 들뜨게 하는 즐거움 일일 보인다. 75년생 전해들은 말에는 과장이 섞여 있음을 알라. 87년생 참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62, 70	酉	45년생 국면의 타개를 위한 노력이 절실할 요망된다. 57년생 여러 번에 걸쳐서 단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69년생 마주대하고 있는 바에 주목 하라. 81년생 진실은 진심으로만 통한다는 사실을 알라. 행운의 숫자 : 51, 74
辰	40년생 전체적인 국면의 구도에 맞게 대응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52년생 납득하기 힘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리라. 64년생 양자 사이에서 처신하기 어렵겠다. 76년생 형식을 버리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06, 53	戌	46년생 다양한 방법을 도출해 내어 전방위적으로 모색하라. 58년생 기막은 잡혀있지만 얼마든지 변수는 있다. 70년생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임을 명심하라. 82년생 준수해야 할 것에 소홀해서는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36, 83
巳	41년생 주의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안심해도 되느니라. 53년생 고민해 왔던 일이 서서히 풀릴 것이다. 65년생 미묘한 인간관계에 따른 고뇌가 보인다. 77년생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자. 행운의 숫자 : 40, 23	亥	47년생 적합한 대상과 관련되면서 진전을 보인다. 59년생 결코 형식에 얽매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71년생 돈은 보이나 잘 통하지 않아서 문제이다. 83년생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간됨을 쓰고 있는 흐름이다. 행운의 숫자 : 89, 7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 ☎010-9790-8237

데뷔 49주년 맞은 '소울의 대모' 임희숙

“가수는 날마다 노래 하는 게 로망”

“히트곡 잊지 않은 팬들 있어 행복”

이혼·대마초 파동 등 인생 굴곡 많아

신곡에는 희망적 메시지 담아 노래

“경로 우대가 시작된 걸요. 하하하.”
한국전쟁이 발발한 나흘 뒤인 1950년 6월 29일 태어난 ‘소울(Soul) 음악의 대모’ 임희숙. 올해로 65세가 된 그녀는 젊어 보인다는 인사에 “제가 오늘 화장을 좀 잘했나 봐요”라며 특유의 화통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올해로 데뷔 49주년을 맞은 그녀는 지난 5일 신곡 ‘어떻게 좀 해봐’를 내고 의욕적으로 팬들 앞에 섰다.
“가수는 날마다 노래하고 싶죠. 힘이 들어도 그게 로망이고 꿈이에요. 노래할 무대가 줄어들면서 6년 전에 이태원에 라이브 카페를 차려 이곳에서 날마다 노래를 해요. 무대에 오를 때면 지금도 긴장 되고요. 다행히 히트곡을 팬들이 외면하지 않아 행복한 가수죠.”

그는 인터뷰 중간 중간 히트곡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진정 난 몰랐네’ 등 노래 제목이 나올 때마다 몇 소절씩 라이브로 들려줬다. ‘국보급’ 중저음과 허스키한 음색, 큰 포물선을 그리는 바이브레이션은 여전히 컷들을 시련하게 했다.

자신의 지난 인생과 부모님 얘기를 할 때는 “오늘 왜 이러냐”고 혼자말하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의 행방불명과 두 번의 이혼, 억울하게 휘말린 대마초 파동과 방송 중단, 음독자살 기도에도 이어 몇 년 전 척추수술까지 그는 한 마디로 팔자가 ‘쌌다’.

임희숙은 그간 소울과 재즈, 가스펠부터 트로트까지 흑인 감성의 음악과 가요를 넘나든 그의 신곡 ‘어떻게 좀 해봐’는 소울에 ‘뽕’을 가미한 소울 트로트곡이다.

가사에는 ‘어떻게 좀 해봐 비뚤어진 지금 흔들리는 세상-씨 뿌리고 가곤 만큼 질사는 그런 세상 만들어봐’ 등 힘을 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겼다.

그는 여전히 예전 곡들도 ‘오리지널 키’로 부른다. 고음에선 되려 청아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중저음에선 온몸을 울리는 풍성한 성량이 퍼져 나와 ‘절창’을 이룬다. 9년 전쯤 호주 공연을 갔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그는 결국 2011년 척추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다며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고 고음만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태어난 순간부터 임희숙의 앞날에는 고생문이 열려 있었다. 출생 얼마 뒤 대한청년단 소속이던 아버지가 납치돼 생사를 알 길이 없었고, 3살 위 언니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다. 어머니는 재가해 두 남동생을 낳았는데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로 유명한 이민용 감독이 그중 한 명이다.

가수의 길을 반대해 딸의 머리카락까지 자른 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못하고 ‘목표의 눈물’을 작곡한 손목인 선생에게 딸을 데리고 갔다.

그는 1966년 고 2때 손목인이 작곡한 ‘외로운 산장’을 음니버



스 판에 녹음하며 데뷔했다. 워커힌 무대에 1년간 출연한 뒤엔 미8군 소로 옮겨갔다. ‘뽕비’의 박인수와 함께 걸출한 소울 보컬로 호평받았다.

그는 1969년 ‘그 사람 떠나가고’를 시작으로 1970년 키보이스가 반주한 ‘정정 난 몰랐네’를 잇달아 내며 필리스터즈, 정훈희와 함께 대표 여가수로 활약했다.

그는 가수 인생 수년의 시작으로 1975년 ‘대마초 파동’에 휘말린 때를 꼽았다. “대마초 혐의가 있는 가수들과 함께 공연하려 다닌 죄책이 없었기에 억울했지만” 1980년까지 5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1974년 첫 결혼을 하고 몇 개월 만에 이혼한데다,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면서 그는 “억울해서 약도 먹었다. 그때 이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고백했다.

가수로서의 기회는 1984년 한 번 더 찾아왔다. ‘등이 휘 것 같은 삶에 무거운~’란 노랫말이 방점을 찍은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가 사랑받았다.

“이 곡은 처음에 가스펠 같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노래. 제 한계를 뛰어넘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딱 그런 곡이었죠.” 그는 “내가 좋아서 택한 길이니 후회는 없다”며 “인내도 지해도 없던 시절 대신 열심히 노래했고, 때론 잘하려다 오버해 못 미칠 때도 있었다. 노래는 내 소리로 세상에 내놓은 자식 같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어제도 행복했고 오늘은 가장 행복하다”며 “그런데 얼마만 없냐”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뻔하지 않은 작품 선택 할래요”



‘협녀, 칼의 기억’ 월소 역 전도연

“호기심 생겨야 배역 빠져들어”

“예전에는 제게 쉽고 편한 작품이 안 들어온다고 말하곤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스토리가 뻔한 이야기나 감정이 쉽게 드러나는 작품에 호기심이 안 생기는 거 같아요. 제 선택의 문제인 거죠.”

10일 서울 종로구 필관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전도연(42)은 감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캐릭터를 자주 맡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녀에게 ‘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준 2007년 ‘밀양’을 비롯해 2010년 ‘하녀’, 2013년 ‘집으로 가는 길’, 올해 개봉한 ‘무뢰한’까지 모두 감정 연기를 소화해내기 쉽지 않은 배역이었다.

오는 13일 개봉을 앞둔 ‘협녀, 칼의 기억’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도연은 대의를 위해 사사로운 감정을 거세하고, 시각장애인인 데 강한 절제미를 동반한 무뎠던 액션을 선보이는 월소 역을 맡았다. “솔직히 어떤 게 편하고 어떤 게 어려운 작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쯤 쉽게 가고 싶다는 생각은 때때로 해요. 하지만, 이야기가 궁금한 작품을 선택하는 건 계속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겨야 제가 맡은 인물에 빠져들 수 있거든요.”

전도연은 이번 영화에서 자신이 맡은 배역을 소화하는데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털어놨다.

“시각장애인 연기와 액션 연기를 집요하게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노력과 상관없이 신체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액션은 아무런 연습을 해도 제 운동 신경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고된 무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유연하지 못하더라고요.(웃음). 시각장애인 연기

도 소리가 들리면 눈이 반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눈의 초점도 그렇고 모니터 화면을 볼 때는 만족도가 컸었는데 영화 화면으로 보니 너무 많은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전도연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가 이렇다 할 흥행으로 이어지지 않아 고민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특유의 귀여운 어투로 말했다.

“정말 흥행은 모르겠어요. 특히, 저는 더욱 흥행에 대해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웃음) 저도 속상하고... 전만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흥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노력을 해요. 최동훈, 박찬욱, 봉준호 감독님 같은 ‘천만 영화’ 감독님들 볼 때마다 시나리오 좀 달라고 해요.(웃음.)”

그러나 그녀는 자신만의 작품 선정 기준과 관객과 소통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흥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의도나 생각과 욕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제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천만 영화 감독님들과 작품 할 기회가 오지 않은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고된 이야기에서 느낀 재미와 감정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제가 느끼고 받아들인 만큼 관객도 받아들이 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너무 무거운 작품만 하다 보니 이런 배우로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이런 분들께 제가 왜 작품을 선택했는지 설명해서 역으로 설득시켜요.(웃음) 제가 현재 누군가의 아내고,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역을 선택하는데 어떤 한 부분에 감응당하고 싶지 않아요.” /연합뉴스